

Title: The Judges – Sermon 1: Sermon Notes

Scripture: Judges 2:7-10

Date preached: March 20th 2022

Scripture: Judges 2:7-10

7 So the people served the LORD all the days of Joshua, and all the days of the elders who outlived Joshua, who had seen all the great works of the LORD which He had done for Israel. 8 Now Joshua the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when he was* one hundred and ten years old. 9 And they buried him within the border of his inheritance at Timnath Heres, in the mountains of Ephraim, on the north side of Mount Gaash. 10 When all that generation had been gathered to their fathers, another generation arose after them who did not know the LORD nor the work which He had done for Israel.

7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으며 그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8 여호와의 종, 누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9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가아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 있는 그의 소유지 딤낫 - 세라에 장사하였다. 10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Introduction

As I may have told you before I am a big fan of western movies. I started watching them as a child and ever since I have loved cowboy films. As a boy I had a little cowboy outfit complete with a holster with my very own toy six shooter. I know that the world depicted in western movies is often stylised and unrealistic. I am sure that life in the American west was not exactly how Hollywood depicts it. But behind the fiction lies a certain degree of reality. The first settlers who moved west did face a difficult challenge. The native Americans were often hostile and resented their presence. The settlers had to be ready to fight and defend their families from attack. Also in a frontier like atmosphere law and order was at times lacking. Sometimes you had to take the law into your own hands. This absence of official law and order allowed people to act in lawless ways.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when we think about this period of time it is we often think about gun-fighters and outlaws

In some striking ways the situation facing the people of Israel in the book of Judges is similar to the first settlers moving west in America. Here they were entering a hostile land with inhabitants who did not want them there. So for God's people the land of Canaan was a wild and lawless place. Occupied by a wicked and pagan people. The Israelites would need to fight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their nation. Also just like in the American west systems of governance and order had yet to be established.

Prior to this time there had been one human leader appointed by God to lead the nation. The nation has been united behind Moses and then Joshua for almost 50 years. Now each individual tribe was required to act independently to conquer their own area and govern their own affairs. In doing this properly they would need to remain obedient and faithful to God and not allow themselves to be corrupted. It would be as we will see throughout the book of Judges something they would struggle to do. But of course these were God's special people. So we would not expect Him to stand by and

allow them to constantly fail. So as we study the book we will see God time and time again stepping in and providing judges; men and a woman to correct, lead and guide His chosen people.

앞서 말했듯이 나는 서부 영화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카우보이 영화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장난감 식스 슈터와 함께 권총집이 딸린 작은 카우보이 복장을 가졌습니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세계가 종종 양식화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미국 서부에서의 삶이 할리우드가 묘사하는 것과 정확히 같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허구 뒤에는 어느 정도의 현실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이주한 최초의 정착민들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종 적대적이었고 그들의 존재를 분개했습니다. 정착민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한 대기와 같은 국경에서는 법과 질서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법을 직접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법과 질서의 부재로 인해 사람들은 무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생각할 때 종종 총잡이와 무법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상황은 미국 서부로 이주한 최초의 정착민과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과 함께 적대적인 땅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거칠고 무법한 곳이었습니다. 사악하고 이교도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미국 서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와 질서의 시스템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했습니다. 이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도하도록 임명하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거의 50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개별 부족은 자신의 영역을 정복하고 자신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적절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충실해야 하며 자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그들이 하려고 애쓰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곁에 서서 그들이 끊임없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재판관을 제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바로잡고 인도하며 인도합니다.

Setting the scene

Before we look at the Judges themselves let us take some time to set the scene. In order to do this we need a brief history lesson. I will do my best to summarise this long and complicated period of history.

Let's begin with the nation of Israel living in Egypt. We are very familiar with the story of Joseph and his brothers. They were envious of their pampered brother and sold him into slavery. He was taken to Egypt and had many interesting adventures. Ultimately he became a powerful and influential man which meant that he could invite his family to come and join him. We know that Joseph's family led by Jacob came to settle in Egypt. The bible tells us that the family (the nation of Israel) numbered 70 people at this time and that they settled in Goshen. The family of Jacob and the generations of people who came from them would remain in Egypt for 400 years. By this time they had grown considerably in number. The Egyptians were fearful of them and sought to make their lives miserable.

It was at this point in history that God intervened. He sent them a leader; Moses who would lead them out of Egypt and to a special place chosen by God. Moses lead the people out from Egypt and into an area we now call the Sinai. God in His grace had delivered the people from the bondage of

slavery. Unfortunately the people were ungrateful and disobedient. Their lack of faith would result in dire consequences. They would be made to wander around the wilderness for 40 years. Moses himself also faced punishment. He was not permitt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of Canaan.

The actual conquest of the land of Canaan would fall to his replacement Joshua. He was a military as well as political leader. You can read about the conquest in great detail in the book of Joshua. The conquest itself took around 6-7 years before it was considered complete. When we say complete we do not mean that all the previous inhabitants of the land were now defeated and gone. It did however mean that the major kings and armies residing in Canaan had been defeated. The Israelites were now the occupying power and could move gradually into the conquered areas. This slow occupation of the land had all been a part of God's plan. Each tribe would occupy an area and would be responsible for subjugating the pagan people who lived there.

So when Joshua died the leadership went from a strong national leader to the various tribal leaders. They were expected to stay focused and committed to purging the land of the pagan Canaanite. However as we will see throughout Judges this was not what happened. Instead of staying strong and focused the individual tribes became weak. They allowed themselves to become corrupted by the evil influences around them. They fell into idolatry and God was forced to intervene to get them back on course. The way he intervened was by sending special leaders, or we might say saviours known as judges.

So now we have set the historic scene let me say a few words about what we mean by the term judges.

심사 위원들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장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역사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 길고 복잡한 역사의 시기를 잘 요약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응석을 부리는 형제를 부러워하고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끌려갔고 많은 흥미로운 모험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가족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끄는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70 명이었으며 고센에 정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그 자손의 후손은 애굽에 400 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이었다. 이때까지 그들은 숫자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역사의 이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곳으로 인도할 모세. 모세는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고 지금 우리가 시나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백성을 노예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족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들은 40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모세 자신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실제 정복은 그의 후임인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정복에 대해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정복 자체는 완료되었다고 간주되기까지 약 6-7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완료라고 말할 때 그 땅의 모든 이전 거주자들이 이제 패배하여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주요 왕들과 군대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점령 세력이 되었고 점차 정복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느린 땅 점령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각 지파는 한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았던 이교도 사람들을 예측시키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지도력은 강력한 국가 지도자에서 다양한 부족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집중을 유지하고 이교도 가나안 땅을 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강하고 집중하는 대신 개별 부족은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악한 영향력에 의해 스스로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개입한 방법은 특별한 지도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판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장면을 설정했습니다. 판사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Judges

Today when we hear the word “judge” we think of a person presiding over a court-room. A person tasked with adjudicating on a trial and passing a judgement. In ancient Israel we do see a similar office. Moses had ordered the people to appoint judges in every Israelite town to settle civil disputes (Deut. 16:18). However this was not really the role of the judges we read about in the book of Judges. Here they do not appear to be responsible for legal issues and passing legal judgements on people. Neither do they seem to be given the role of teaching the law to people. This always remained the job of the priests. So what exactly was the job of the judge?

The judges were special men and a woman who were appointed by God to lead the people in some way. God had endowed them with particular qualities, for a particular purpose at a particular time. We might think of them as deliverers or saviours who led the people to throw off their oppressors. In practical terms they were a mix of a mayor, a marshal, a prophet, and a general. In simple terms they were what was needed at exactly the right time. In our study we will look at all twelve judges mentioned in the book.

The final thing I want to talk about here in my introduction is the recurring pattern we see in the book of judges.

오늘날 우리는 “판사”라는 말을 들으면 법정을 주재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재판을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일을 맡은 사람.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비슷한 직분을 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신 16:18).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은 사사기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법적 판단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부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의 직무는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재판관은 어떤 식으로든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한 특별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특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압제자들을 내쫓는 사람들을 인도한 구원자 또는 구원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시장, 원수, 예언자 및 장군이 혼합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들은 정확히 적시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우리는 책에 언급된 모든 12명의 판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내 서론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Recurring pattern

As you read the book you will notice that the people fall into the same repeated way of behaving. We refer to it as the “**cycle of sin.**” At the top we see that when the people are faithful and obedient to God things go well. They are permitted to live in peace. However when they fall into sin, and

particularly idolatry, God is not pleased. He sends a group to enslave or oppress Israel. The people cry out to God for His mercy and deliverance. God recognises that they are repenting of their sin and in His mercy sends a deliverer in the form of a judge. Through the help of the judge the people are delivered. The joyful people praise God and live in faithful obedience for a short time. Sadly however they soon fall into sin and the pattern repeats itself. The people of Israel seem incapable of learning from their past mistakes.

Let us now turn to today's scripture.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 특히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한 무리를 보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거나 압제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비와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아시고 자비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판사의 도움으로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시 충성된 순종으로 산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곧 죄에 빠지고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7 So the people served the LORD all the days of Joshua, and all the days of the elders who outlived Joshua, who had seen all the great works of the LORD which He had done for Israel.

If you look in your bibles you will see that the book preceding Judges is the book of Joshua. The book of Joshua ends with a very similar description of the death of Joshua. Joshua was a mighty leader.

A brave and courageous general and political leader whom the people rallied around and obeyed. We should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good leaders to set a good moral example.

When a family, a church or a nation has a leader who seeks after the things God wants the positive results are evident. Equally we need to be aware of how weak or indecisive leaders can lead to decline, corruption or a general falling away. Under Joshua the people of Israel faithfully and obediently served God.

That is the key take-way from this verse. Remember that Joshua and the other elders mentioned here had lived through the wilderness wanderings. They remembered all of the amazing things that God had done for the people. They also had lived through the conquest of Canaan. They had witnessed how God had enabled their relatively small nation to take over the land. As a consequence they sought after God and did not turn to other idols or sinful practices.

성경을 보면 사사기 이전의 책이 여호수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매우 유사한 묘사로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인민이 규합하고 복종한 용감하고 용감한 장군이자 정치가. 우리는 훌륭한 도덕적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교회, 국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지도자가 쇠퇴, 부패 또는 장군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고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여호수아와 다른 장로들은 광야 방랑을 통해 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기억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나안 정복을 통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대적 으로 작은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방법을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다른 우상이나 죄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8 Now Joshua the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when he was* one hundred and ten years old.

We get given here some interesting details about Joshua. Firstly we are told that he was the son of Nun. Secondly he is described as **the servant of the Lord**. This a deeply meaningful way to describe someone. In scripture, it is only applied to great men like Moses (Deuteronomy 34:5), David (Psalm 18:1), and the courageous prophets (2 Kings 9:7). Referring to him in this way signals to us that Joshua was a very special leader who God used in a mighty way. It also highlights that Joshua himself had a certain attitude. He was loyal and faithful to God and never sought to enhance his own reputation or image.

We are also told that he was 110 years old when he died. Is this number significant? Would it have meant something to the original readers? We cannot know for sure. If it was insignificant we might wonder why it is mentioned. The writer could have simply said Joshua died as an old man. One commentary I looked at contrasted Moses and Joshua. Moses died at 120 years of age. Twelve is a very significant biblical number. It can be found 187 times in scripture! We see for example 12 tribes of Israel, 12 apostles, 12 cakes of unleavened bread placed in the temple.

The number 11 by contrast is one short of the perfect 12. So when Judas betrayed Christ the perfect group of disciples was reduced by one to 11. The mighty Samson was betrayed by Delilah for 1100 pieces of silver. Meaning that all of Samson's good work was ultimately undone by his betrayal. Is this what the biblical author is telling us? That all of Joshua's good work in leading the people and conquering Canaan was undone by the betrayals that were to follow his death. Is it intended as a warning to future generations that if they were not faithful God would reduce them in some way? It's certainly a sobering thought. That within one generation so much might be lost.

우리는 여기서 Joshua 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 정보를 얻습니다. 먼저 그가 눈의 아 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둘째, 그는 주님의 종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설명 하는 매우 의미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신명기 34:5), 다윗(시 18:1), 용감한 선지 자(왕하 9:7)와 같은 위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를 언급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신 아주 특별한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여 호수아 자신도 특정한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하나님께 충실 했으며 결코 자신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죽었을 때 그가 110 세였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까? 원작 독자들에게 의미가 있 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 왜 언급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노인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본 한 주석은 대조되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120 세에 죽었습니다. 12 는 성경에서 매 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187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스라엘 12 지파, 12 사 도, 12 개의 무교병이 성전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대조적으로 숫자 11 은 완전한 12 보다 하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때 완전한 제자들의 그룹은 1 로 11 로 줄었습니다. 강력한 삼손은 은 1100 개에 들릴라에게 배반되었습니다. 삼손의 모든 선행 이 결국 그의 배신으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 고 있는 것입니까?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모든 선행은 그의 죽음에 뒤따를 배신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감소시키실 것이라는 경고로 의도된 것입니까? 확실히 냉정한 생각입니다. 한 세대 안에 그토록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 And they buried him within the border of his inheritance at Timnath Heres, in the mountains of Ephraim, on the north side of Mount Gaash.

Joshua was buried in the mountains of Ephraim.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 묻혔습니다.

10 When all that generation had been gathered to their fathers, another generation arose after them who did not know the LORD nor the work which He had done for Israel.

This is a key verse in helping us understand what happens throughout the book of Judges. Once Joshua's generation had died there was a dramatic and pronounced falling away from God. This is actually a very sad indictment against the people of Joshua's generation. No doubt they got caught up in “working for God” and doing what they thought necessary. Unfortunately however they neglected one crucial thing. That crucial thing was to teach their children about God and all that He had done for their nation. Because of this oversight this latter generation grew up without a relationship with God or an appreciation of all He had done. Without this foundation in God it meant that they would blow wherever the wind took them.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자 극적이고 확연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대한 매우 슬픈 기소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하느님을 위해 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이 그들의 나라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감독 때문에 이 후기 세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 없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초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어디로든 날아갈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about today's passage.
오늘 본문에 대해 두 가지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How will you be remembered?

I hope that all of you have many more years of life to look forward to. But lets hypothetically leap forward to a time after you have died. How do you suppose you will be remembered? What do you think people will say about you? We all hope to be remembered fondly by the people who knew us. Joshua as we saw in today's passage was remembered in a very distinct and special way. He was renowned as a mighty warrior and an excellent general. But he is remembered for being a servant of the Lord. That should be our ideal. That is how we should have people remember us. As being a loyal and faithful servant to the God who deemed us worthy of saving.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더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상으로 당신이 죽은 후의 시간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여호수아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전사이자 뛰어난 장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종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해야 합

니다. 우리를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Thinking properly about the future

I want to read you a quote from former US president Ronald Regan;

“Freedom is never more than one generation away from extinction. We didn't pass it to our children in the bloodstream. It must be fought for, protected, and handed on for them to do the same, or one day we will spend our sunset years telling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what it was once like in the United States where men were free.”

How true those words are. Not just for the USA, but for Korea and every other country that thinks freedom is important. How relevant those words are today when so many seem happy to give away hard fought freedoms. Once you give up a freedom you don't get it back. So think very carefully before you agree to vaccine passports, restrictions on travel or other limits on your freedom.

But it's not just freedom that is important it's also our Christian heritage. I saw in the Korean Herald newspaper recently that the number of Americans who identify as Christians had dropped 15 percentage points since 2007. In 2007, 87% of Americans identified as being Christian by 2021 this had dropped to 63%. Its an alarming trend that is happening in many places.

It would be good if we could simply pass on our faith to our children though our DNA or some kind of osmosis. Sadly this is not how it works. We must teach and train the next generation. If we fail in our duty then we will be just like Joshua's generation. We will have failed and 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not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I urge you therefore to take your God given responsibilities seriously. Let us think properly about the future and raise our children to know and respect God.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인용문을 읽고 싶습니다. “자유는 멸종에서 한 세대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혈류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싸워야 하고, 보호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한때 남성이 자유로웠던 미국이 어땠는지 말하면서 우리의 일몰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싸운 자유를 기꺼이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이 말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는 한 번 포기하면 되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백신 여권, 여행 제한 또는 기타 자유 제한에 동의하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유산이기도 합니다. 나는 최근에 코리안 헤럴드 신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인의 수가 2007년 이후 15% 포인트 감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2007년에는 2021년까지 87%의 미국인이 기독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63%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추세입니다. 우리의 DNA 나 일종의 삼투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어진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을 촉구합니다. 미래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경하도록 양육합니다.

